

# 18~19세기 永川 鄭世雅 후손들의 請諡와 門中 활동\*

김 명 자\*\*

- |                                 |                |
|---------------------------------|----------------|
| I. 머리말                          | III. 請諡의 전개 과정 |
| II. 永川 烏川鄭氏 가계와 鄭世雅 · 鄭宜藩 관련 자료 | IV. 請諡의 의미와 성격 |
|                                 | V. 맺음말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조선후기 영남 사족사회에서 請諡가 활발했는데, 그들은 왜 諡號를 청원했는가, 조상의 시호를 받기 위해 후손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청시의 전개 과정은 어떠한가, 조상에게 내려지는 시호가 후손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등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영천의 烏川鄭氏가 그들의 先祖 鄭世雅 · 鄭宜藩 父子에 대해 청시한 사례를 살폈다. 여기서 다룬 내용과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친정씨는 18~19세기 10여 차례 이상 정세아와 정의번의 諡號와 旌閭를 내려달라고 상소했다. 정세아에게는 ‘倡義해서 城을 회복한 功’으로 시호를 내려주고, 정의번에게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아버지에게 효도한 功으로 정려를 내려달라고 했다. 반세기에 걸친 수 차례의 상소로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02)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 전자우편 : mjkim0303@hanmail.net

정의번에게는 1784년 정려가 내려졌고, 정세아에게는 1788년 시호가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천정씨의 청시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 19세기에는 후손들과 영남의 사족들이 연명의 형태로 정의번의 시호와 그와 함께 경주성에서 죽은 奴 億壽의 旌表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후손들이 상소할 때는 50~120여명이 연명했고, 영남의 사족들이 상소할 때는 300~500여명이 연명했다.

오천정씨가 이처럼 오랜 시기에 걸쳐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청시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조상을 顯彰하고, ‘百世不遷’의 宗家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종가는 크게 大宗家와 小宗家로 나눌 수 있는데, 대종가는 ‘백세불천’의 신위를 모시고 있어야 하며, 소종가는 4대가 지나면 신위를 遞遷한다. 시호를 받은 조상의 신주는 체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상의 시호가 내려지면 나라로부터 대종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조상에게 내려지는 시호는 후손과 문중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었다. 그래서 후손들은 조상 가운데 행적이 뚜렷한 인물의 청시를 활발하게 전개했던 것이다.

한편 오천정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 고을에서 수백 명이 연명한 상소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학연·혈연적 기반에서 비롯되었다. 16~17세기 오천정씨의 학연은 ‘旅軒學團’로 상정할 수 있으며, 혼인은 영남 중부지역에 거주하는 성씨들과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17세기 후반부터 오천정씨 가운데 ‘葛庵學團’에 속하는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혼반도 영남 북부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들은 넓어진 인적 교류망을 기반으로 영남 사족의 ‘연대’를 통해 문중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청시를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었다.

◆ 주제어

烏川鄭氏, 鄭世雅, 鄭宜藩, 諡號, 請諡, 旌閭, 百世不遷, 大宗家, 門中

## I. 머리말

16세기 이후 영남의 사족은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았지만, 관권과 타협하면서 향촌사회를 주도해 나갔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鄉案을 만들고, 留 鄉所를 운영하며, 鄉校와 書院에 출입하고, 鄉約과 洞契·洞約 등을 실시 했다.<sup>1)</sup> 그러나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정치에서 영남 남인의 배제, 경제적 확대 재생산의 불가능, 종법의 수용 등으로 사족의 일향 지배는 불가능해 지고, 향촌사회는 門中을 단위로 재편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사족 개인의 위상은 문중의 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었다.<sup>2)</sup>

‘百世不遷’의 조상을 모시면 문중의 위상이 크게 제고된다. 부계적 가족 질서가 정착함에 따라 특정 선조의 후손들은 동일 문중의 구성원이 되며, 그 가운데 만아들로 계승된 가계는 宗家가 된다. 종가는 크게 大宗家와 小宗家로 나눌 수 있는데, 대종가는 ‘백세불천’의 신위를 모시며, 소종가는 4대가 지나면 신위를 遞遷한다.<sup>3)</sup> 조상이 시호를 받게 되면 후손들은 그 조상을 ‘백세불천’의 조상으로 모실 수 있게 되어 大宗을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문중의 구성원들은 조상을 顯彰하고 대종을 실현하기 위해 도내 유림의 이름으로 혹은 후손들의 이름으로 조상 가운데 행적이 뚜렷한 인물에 대한 請諡를 활발하게 전개했다.

지금까지 諡號와 관련된 연구는 시호 제도가 주를 이루었으며,<sup>4)</sup> 그 밖

- 
- 1) 김인걸, 『조선후기 鄉村社會 변동에 관한 연구 : 18·19세기 ‘鄉權’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1.
  - 2) 金命子,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박사학위논문, 2009.
  - 3) 『禮記』 卷16, 「大傳」 “別子爲祖 繼別爲宗 繼禰者爲小宗 有百世不遷之宗 有五世則遷之宗 百世不遷者別子之後也 宗其繼別子之所出者 百世不遷者也 宗其繼高祖者 五世則遷者也”(權五惇 譯解, 흥신문화사, 1982)
  - 4) 俞尙根, 「李朝時代의 贈諡制度」, 『象隱趙容郁博士頌壽紀念論叢』, 1971(『朝鮮前期論文選集 77』, 三貴文化社, 1998, pp.62-77 재수록); 申用浩, 「先賢들의 諡號研究」, 『公州師大論文集』 27, 1989; 朴洪甲, 「李朝時代의 贈諡制度」,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金潤坤教授停年紀念論叢』, 2001; 李漢昌, 「諡號制의 來歷

에 贈諡行政의 절차와 과정,<sup>5)</sup> 증시와 청시의 사례<sup>6)</sup> 등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시호제도의 기원, 시호의 자격과 대상, 증시행정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밝혀졌다. 아울러 조정에서의 증시 사례 및 도내 유림들에 의한 청시 과정과 그 의미를 밝히려고 한 시도도 있었다.

조선후기 사족들이 조정에 시호를 청원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시호를 청원했는지, 조상의 시호를 받기 위해 후손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청시의 전개 과정은 어떠한지, 시호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조상에게 내려지는 시호가 후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본고는 18~19세기 永川의 鄭世雅 후손들이 그들의 선조 鄭世雅(1535~1612) · 鄭宜藩(1560~1592) 父子에 대해 청시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세아 부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창의하여 영천성 회복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의번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전쟁 중에 싸우다가 사망했다. 그런데 후손들은 이들의 행적에 걸맞는 追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정세아 부자의 시호와 정려를 받기 위해 여러 세대에 걸쳐 노력했다. 후손들의 청시 과정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첫 번째는 永川 烏川鄭氏 가계와 정세아 · 정의번의 행적 및 이들과 관련된 자료를 소개하겠다. 두 번째는 후손들의 청시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갖는 의미와 성격을 고찰해보겠다.

## II. 永川 烏川鄭氏 가계와 鄭世雅 · 鄭宜藩 관련 자료

---

과 李石灘의 贈諡 事例, 『白山學報』 70, 2004.

- 5) 김학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증시(贈諡) 행정」, 『고문서연구』 23, 2000.
- 6) 李漢昌, 앞의 논문, 2004; 金命子, 앞의 논문, 2009.

## 1. 永川 烏川鄭氏 가계

烏川鄭氏는 延日鄭氏·迎日鄭氏로도 불리는데,<sup>7)</sup> 영천에 세거한 정씨는 고려의 추밀원 지주사 龔明(?~1157)을 시조로 한다. 정습명은 예종~의종에 걸쳐 內侍祇候·禮部侍郎·翰林學士 등을 역임했고, 『삼국사기』의 편찬에도 참여했다.<sup>8)</sup> 오천정씨는 고려 말까지 문호가 번성했으며, 8세 仁彦(1315~?)은 고려의 운명이 다할 것을 예견하여 영천 錢村으로 落南했다. 11세 정몽주가 왕조 교체기에禍를 당하면서 오천정씨는 크게 위축되었으나 조선왕조 개국 이후에 復爵되어 가계의 위상도 다시 회복되었다.

이후 9세 光厚(1344~1416)는 조선조에 들어와 문과 급제하여 공조판서에 올랐고, 11세 文裔는 敎導를 역임했으며 전촌에서 大田村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12세 從韶는 좌랑을 지내는데, 성삼문·박팽년 등과 교유했고, ‘병자년 옥사’ 이후 벼슬을 멀리했으므로, 김종직이 그를 공경하여 ‘烏川鄭先生’이라 불렀다고 한다.<sup>9)</sup> 14세 次謹는 무오사화 당시 김종직과 世誼가 깊었던 오천정씨에게 화가 미칠 것을 피하여 대전촌에서 紫陽縣 魯巷村으로 이거했다.<sup>10)</sup>

그의 아들 允良(1515~1640)은 昌陵參奉를 지냈고, 이황의 문인으로 金應生과 더불어 紫陽書堂을 건립했으며, 盧遂·김응생·鄭踞 등과 함께 臨臯書院을 건립하여 원장을 역임하는 가운데 향풍을 크게 진작시켰다.<sup>11)</sup> 중종연간에 정몽주가 文廟에 종사됨에 따라 오천정씨는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높아졌으며, 비교적 이른 시기인 1553년(명종 8) 경상도 병마

7) 본고에서는 烏川鄭氏로 사용하겠다.

8) 『迎日鄭氏宣務郎公派譜』(1999)

9) 『慶尙北道永川郡邑誌』(1899) 「人物」

10) 『國譯湖叟先生實紀』 卷2 「姓貫鄉里」

11) 『國譯湖叟先生實紀』 卷2 「年譜」; 黃俊良, 『錦溪集』 卷8 外集, 雜著, 「紫陽書堂記」 “吾友永陽金君[金應生] 少志于學 見推士林 連屈有司 菀菀不得志 退居明山之陽 結廬水竹之間 韜養多年 將大厥施 乃謀同人鄭君允良等 協功出力 建堂于李椅書齋之舊址”; 『臨臯書院誌』 「考往錄」, 「院長錄」

절도사 鄭世弼이 오천정씨 족보도 간행했다.<sup>12)</sup> 이처럼 16세기에 이르러 오천정씨는 향촌에서 사족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했다.

이러한 가운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16세 정세아는 그의 아들 宜藩 · 安藩 · 守藩 등과 창의하여 영천성을 회복하는데 커다란 공을 세웠다. 이후 의병의 지도자들은 회맹을 통해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는데, 『復齋實紀』에 실린 「壬亂同苦會盟錄」을 통해 여기에 참여한 인물을 확인할 수 있다. 영천 12명, 신령 9명, 경주 6명, 하양 2명, 경산 1명, 의흥 2명, 기타 2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가운데 영천에는 金潤國 · 鄭大任 · 鄭世雅 · 鄭湛 · 曹城 · 曹希益 · 郭懷瑾 · 崔仁濟 · 鄭千里 · 辛俊龍 · 全三益 · 全三達이 등재되어 있다.<sup>13)</sup> 김윤국은 영천군수였고, 나머지는 영천의 사족이다. 이 자료가 오천정씨 鄭湛의 실기이기는 하지만, 오천정씨가 4명이나 차지한 것으로 미루어 이들이 영천의 의병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천정씨의 의병 창의를 향촌에서 이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영향을 끼쳤으며, 임진왜란 이후 향촌질서의 안정에도 오천정씨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정담이 1614년 향촌의 규범인 ‘鄉規’를 작성한 것이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사회혼란은 기존질서를 크게 위협했고, 국가와 사족의 권위는 실추되었으며, 백성들은 동요했다. 임진왜란 당시 창의하여 입지가 더욱 강화된 재지사족들은 향약과 『주자가례』와 같은 유교적 규범과 제도를 철저히 시행해서 기존의 질서를 다시 확립하려고 했다.<sup>14)</sup> 향촌질서의 회복에 오천정씨가 앞장섰던 것이다.<sup>15)</sup>

12) 조선시대 오천정씨의 족보는 1553년의 계축보 이후 1647년(인조 27)의 기축보, 1720년(숙종 46)의 경자보, 1774년(영조 50)의 갑오보, 1865년(고종 2)의 을축보, 1880년(고종 17)의 경진보 등으로 이어졌다.(『迎日鄭氏宣務郎公派譜』(1999))

13) 鄭湛, 『復齋實紀』 卷2 「壬亂同苦會盟錄」

14) 권연웅, 「鄭湛의 永川 鄉規」, 『慶北史學』 26, 2003, pp.263-277.

15) 세계도는 【부표】 참조.

## 2. 鄭世雅 · 鄭宜藩 관련 자료

1592년 4월 14일 왜군이 1차로 동래에 상륙하여 尙州로 향했고, 4월 18일 상륙한 왜군의 일부가 4월 23일 永川에 입성했다. 그러나 영천 사족들이 창의하여 구성한 의병군과 경상좌병사 차츰을 비롯한 관군과의 연합으로 7월 27일 영천성 회복에 성공했다. 이것은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패전 일로를 걷던 의병 전투에 활력을 부여 해줬을 뿐만 아니라 영남좌도가 회복되고, 경주부 읍성 탈환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sup>16)</sup>

그러면 영천성 회복에 공을 세운 鄭世雅와 鄭宜藩은 어떤 인물이며, 이들 부자의 임진왜란 당시의 행적이 기록된 자료 및 이들에 대한 請諡와 정려 추진 과정과 관련된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정세아(1535~1612)의 字는 和叔이고, 號는 湖叟이다. 성군관 사성 및 예천 · 영천군수 등을 역임한 從韶의 현손이며, 1558년(명종 13) 사마시에 합격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규합하여 영천성 수복에 기여했으며, 경주의 왜적 격퇴도 함께 했다. 1605년(선조 38) 宣武顯從功臣三等에 錄勳되었고, 체찰사 李元翼이 여러 번 천거했으나 사양하다가 1607년(선조 40) 黃山道 察訪에 제수되어 잠시 관직을 역임했다. 그러나 곧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왔다. 張顯光 · 曹好益 · 李竣 등과 학문을 토론하며 후진 양성에 힘썼다. 부인은 比安縣監을 역임한 일직손씨 致雲의 딸이다. 영천의 環阜祠에 봉향되었다.<sup>17)</sup>

정의번(1560~1592)의 자는 衛甫이고, 호는 栢巖이다. 정세아의 아들로 1585년(선조 18) 생원시에 합격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아버지를 따라 동생 安藩 · 守藩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영천 柵淵전투에 참여했고, 6월 9일 경주 蚊川會盟에 참가하여 義士들과 토적결의를 다졌다. 7월

16)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03, pp.185-230.

17) 『國譯湖叟先生實紀』 卷2 「年譜」, 卷5 「行狀」; 『湖叟公宗宅古文蹟抄』 「教旨」

26일의 '永川城復城戰'에 참전하여 공을 세웠고, 8월초의 慈仁전투와 같은 달 21일 경주성 전투에도 참전했다. 정의번은 경주성 전투 당시 서문으로 진격하여 싸우다가 아버지를 구출한 후 적에게 죽임을 당했다. 영천 環阜祠에 배향되었다.<sup>18)</sup>

한편 정세아·정의번의 임진왜란 당시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후손들은 1782년 정세아와 정의번의 「年譜」·「行狀」·「事實」 등을 엮어 實紀를 편찬했다.<sup>19)</sup> 이것은 兩世 실기의 성격을 띠며, 내용의 대부분은 임진왜란 당시 이들의 행적을 담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정세아와 정의번의 행적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당시까지 전해오던 이들의 자료 및 기록에 대해 후손들이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年譜」·「行狀」·「墓誌銘」 등에 보이는 정세아의 임진왜란 당시의 행적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왜군이 침입하고 임금이 서북으로 피난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자 초야에 있던 정세아가 아들을 시켜서 행오를 짜고 격문을 만들어 향병을 모집하게 했는데, 10~30일 사이에 모인 사람이 900여 명이 되었으며, 이들이 정세아를 의병장으로 추대했다는 내용이다. 둘째, 적이 軍威에서 新寧으로 가자 정세아가 권응수·정대입 등과 더불어 박연에서 크게 싸워 적군의 목을 베니 軍聲이 크게 진작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같은 해 왜군이 영천을 점령하자 정세아가 權應鉉·鄭大任·曹誠·申海 등과 합세하여 적을 물리쳤으며, 이로 인해 영남 좌도가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8월 경주의 적을 향해 군사 500 여인을 이끌고 진격했고, 박진의 병사와 더불어 溪淵에서 군사 수만을 모았으며, 정세아가 선봉장이 되어 싸웠는데, 이로 인해 적이 도망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명나라 장수 李如松이 많은 병사를 이끌고 조선에 들어 오고 임금이 서울로 돌아오자, 정세아는 병사를 曹希益에게 귀속시키고

18) 『國譯湖叟先生實紀』 卷6 「行狀」; 『湖叟公宗宅古文蹟抄』 「教旨」

19) 重刊은 1874년(철종 11)에 했고, 1976년에 국역본이 나왔다.(『國譯湖叟先生實紀』 卷2 「年譜」)

고향 紫陽으로 돌아와 스스로 ‘江湖叟’라 칭하며 모든 공을 뒤로 하고 은둔했다는 내용이다.<sup>20)</sup>

한편 정의번의 임진왜란 당시의 행적은 「哀詞」·「行狀」·「詩塚賦」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행장」에는 정의번이 아버지와 항상 함께 했는데, 경주성을 탈환할 때 정세아가 성안에서 싸우자 정의번이 적의 포위를 뚫고 들어가 아버지를 찾는 가운데 적의 화살을 맞아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의번의 시체를 찾지 못하자 화살로써 招魂하고, 정의번의 지인들에게 詩를 구해 墓를 만들었으며, 輓詞와 祭文을 생전 입던 의관과 함께 관 안에 넣고 장사지냈다고 한다.<sup>21)</sup>

그 밖에 정세아와 정의번의 기록 가운데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선조수정실록』이다. 여기서는 권응수가 의병장 정대임·정세아·조성·신해 등의 군사를 거느리고 진군하다가 영천의 박연에서 적병을 만나 격파하고 그들의 병기와 재물을 거두었으며, 여러 고을의 군사를 모아 별장 鄭天賚 등과 함께 진군하여 영천성을 회복했다는 것이다. 정세아는 군사는 가장 많았으나 군사를 권응수에게 붙이고 행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賞職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다.<sup>22)</sup>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관군과 의병의 狀啓 및 일기에 보이는 기록은 이와 조금 다르다. 경상우도 초유사 金誠一이 1592년 9월 22일에 올린 狀啓에 의하면, “영천 진사 정세아 등 60여인이 5월 중에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고, 7월 27일 권응수와 함께 영천의 적을 섬멸했으며, 8월 7일 다시 경주 자인현에서 적을 물리치고, 같은 달 21일 경주에서 적을 토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성안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했으나 듣지 않고 먼저 성안 깊이 들어갔습니다. 생원 정의번·최인제 … 등 17인이 같은 날 전사했습니다”<sup>23)</sup>라고 했다.

20) 『國譯湖叟先生實紀』 「行狀」, 「神道碑」, 「墓誌銘」

21) 『國譯湖叟先生實紀』 卷2 「年譜」

22) 『선조수정실록』 선조 25년 8월 1일(무자).

23) 『國譯湖叟先生實紀』 卷4 附錄 「敘述」

그 밖에 崔暉이 도체찰사 李元翼에게 올린 上書와 최현의 「壬辰日記」, 金功이 慶尙左道 安集使가 되었을 때 올린 狀啓, 申元祿의 師友錄, 崔應泗의 「壬辰日記」, 申乞의 「亂蹟撰集」, 趙英男이 찬한 『海東野史』 등에도 정세아의 행적이 보이며, 그 내용은 김성일의 장계와 대동소이하다.<sup>24)</sup>

鄭湛(1552~1634)이 쓴 「永川復城日記」에도 정세아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이것은 1592년 6월부터 8월까지 영천성이 회복될 때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대임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 가운데 7월 24일과 26일 기사에 정세아의 이름이 있다. 7월 24일에는 창의정용군에 권응수가 별장, 신해가 좌총, 최문병이 우총, 정대임이 중총, 홍천뢰가 선봉장, 영천군수 김윤국이 별장, 진사 정세아와 정담이 찬획종사를 맡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7월 26일에는 경주성을 지키기 위해 권응수·신해·홍천뢰·박의장·한척·조윤신 등은 서북문을 포위하고 있고, 정대임·정담·정세아·김윤국·최문병·최대기·조희익·신준용·이번·조덕기 등은 동남문을 포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sup>25)</sup>

『火旺入城同苦錄』에 의하면 정세아가 화왕산성에 입성했음을 알 수 있다. 1597년 왜군이 재침하자 방어사 곽재우 장군이 이끈 군사가 화왕산성에 입성했는데, 그때 입성한 인물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그것의 현존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1734년 朴胤光의 주도로 간행된 『倡義錄』 卷2에 『화왕입성동고록』이 수록되어 있는데,<sup>26)</sup> 거기에 기재된 699명 가운데 정세아의 이름이 있다.<sup>27)</sup> 『東溪實紀』에는 정세아가 문천회맹에 참여했

24) 『國譯湖叟先生實紀』 卷4 附錄 「敘述」 참조.

25) 『復齋實紀』 卷1 雜著 「永川復城日記」

26) 하영휘, 「화왕산성의 기억」, 『입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pp.113-143. 이 논문에서 하영휘는 『화왕입성동고록』의 편찬 배경에 대해 밝혔으며, 후대에 이르러 화왕산성 입성에 신화적 성격이 부여되었다고 했다.

27) 그런데 안동에서 ‘安東列邑鄕兵’으로 의병이 조직될 당시 總理軍簿責任을 맡았던 水月堂 金兌(1561~1609)가 작성한 『火旺山城諸賢倡義錄』을 보면 화왕산성에 입성한 인물 151명의 성명과 字, 관직, 거주지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정세아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火旺山城錄』, 창녕문화원, 1996)

다고 하며,<sup>28)</sup> 『八公山會盟錄』에도 정세아의 이름이 보인다. 그 밖에 『燃藜室記述』·『慶尙北道永川郡邑誌』(1899)·『永陽誌』(1935) 등 후대에 실린 것은 대체로 앞서 소개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들이다.

다음은 청시 관련 자료이다. 오천정씨 문중에서 작성한 고문서의 일부가 지금까지 전해오는데, 1988년 宗約會에서는 206건을 성책하여 『湖叟公宗宅古文蹟抄』로 엮었다. 그 가운데 通文이 32건, 上書가 29건, 所志가 10건이며, 특히 상서와 소지에 상응한 題辭가 28건이다. 그 밖에 教旨·完議·遺墨·書札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청시 및 정려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와 그 서지사상은 <표 1>과 같다.

<표 1> 정세아·정의번의 시호와 정려 청원 문서

연번	작성 연도	문서 종류	작성 주체	내용	연명 인원
1	1731년(영조 7)	上言草	鄭重器	鄭世雅·鄭宜藩의 贈典과 旌閭	
2	18세기 중반	原情	鄭一鎭	정세아의 시호, 정의번의 정려	
8	1747년(영조 23)	上書	鄭一鎬 외	정의번의 시호	89
3	1768년(영조 44)	上書	鄭夏淑 외	湖叟公·栢巖公 實紀 올림	48
4	1770년(영조 32)	上書	鄭夏淑 외	정의번의 시호	59
5	1784년(정조 8)	上言	鄭夏濬	정세아의 시호, 정의번의 정려	
6	1784년(정조 8)	上言草	鄭來休 외	정세아의 시호, 정의번의 정려	
7	1807년(순조 7)	上書	李鼎儼 외	정의번의 시호	594
9	1827년(순조 27)	上書	金義壽 외	정의번의 시호, 奴 億壽의 旌表	502
10	1841년(헌종 7)	上書	金秉壽 외	정의번의 시호, 노 역수의 정표	355
11	1868년(고종 5)	上書	鄭徹休 외	정의번의 시호, 노 역수의 정표	124

반면 1922년에 작성된 『화왕산동고록』에는 수천여명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이에 대한 사료적 검토가 필요하다.

28) 李彦春, 『東溪實紀』 壬辰 6월 5일조.(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03, p.199 재인용)

문서는 모두 11건이며, 작성 시기는 18세기 초중반에서 19세기 중후반에 걸쳐 있다. 그 밖에 정세아와 정의번에게 내려진 교지 8건, 鄭重器와 鄭夏濬의 상소에 대한 吏曹와 禮曹 回啓, 李在韶를 비롯한 영남의 사족이 정의번의 정려를 요구하는 상소에 대한 禮曹의 回啓와 關文, 吏曹와 廟堂의 回啓 등이 있다.<sup>29)</sup>

### III. 請諡의 전개 과정

#### 1. 18세기의 請諡

임진왜란 당시 재지사족들은 주도적으로 의병을 결성하여 향촌을 지켰다. 왜군의 진로와 연관하여 영남, 특히 영남우도에서 의병활동이 더욱 활발했다. 조정에서는 전쟁이 종결된 이후 의병의 행적을 평가하여 賞職을 내렸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서 뚜렷한 행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후손들이 직접 상소를 올려 증직 혹은 시호를 요구하기도 했다.

오천정씨도 임진왜란 당시 창의한 정세아와 정의번의 공적에 의거해 이들의 시호와 정려를 청원했다. 후손들은 정세아가 영천에서 가장 먼저 창의했고, 영천성 회복과 경주성 회복에 많은 계락을 내놓았으며, 정의번은 아버지를 따라 의병에 나섰다가 경주 전투에서 순국했다고 주장했다.<sup>3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정세아에 대한 논공행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경상좌병사朴晉과 영천군수 金潤國이 영천성 회복이 자신들의 공이라고 조정에 보고한 것과<sup>31)</sup> 정세아가 전쟁이 끝나갈 무렵 자양

29) 후손들은 鄭重器의 상소, 諡狀, 吏曹回啓, 禮曹回啓, 廟堂回啓 등 정세아와 정의번의 추증과 관련된 자료 가운데 중요한 것을 따로 모아 『國譯湖叟先生實紀』 卷7에 실어 놓았다.

30) 『湖叟公宗宅古文蹟抄』 「請 褒贈兩世上言」

31) 鄭湛, 『復齋實紀』 卷1 雜著 「永川復城日記」 “永川復城之日 金潤國朴晉皆竊以

에 은거하면서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

功을 논할 때, 공은 이것을 부끄러이 하고 목을 베어 얻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한 것 같이 하지 않고, 애당초 거기에 참여한 일이 없는 것처럼 했다. 或者가 말하기를 “국가에 대한 功을 기록함에 한 적병의 목을 벤 사람은 賞을 의논하고 城을 공격한 자는 벼슬을 通侯로 한다고 하는데, … 城을 온전케 하고 이긴 功을 세운 자 공이 아니고서 그 누구이겠는가? 부귀를 앞에 두고서도 이것을 저버리니, 이 어찌 너무나 청렴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자 공은 “내가 듣거늘 군자는 義를 바르게 하고, 소인은 功名을 따르다 하였으니, 내가 당초 의병을 일으킬 적에 다만 主辱臣死하는 것만을 보았을 뿐이고,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기약했던 바가 아니다”<sup>32)</sup>라고 했다.

이처럼 정세아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족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자 했지만, 논공행상에는 초연했다. 그러나 후손들은 조상에 대한 공적을 제대로 평가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상소와 상서 등을 통해 조상의 공훈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1731년(영조 7) 오천정씨는 처음으로 정세아 부자의 추증과 정려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정세아의 6세손이자 이현일의 문인인 승문원 정자 鄭重器(1685~1757)는 ‘정세아가 의병을 일으킨 功과 城을 회복한 공을 생각해주고, 정의번이 나라에 순국하고 아버이를 위해 죽은 효행을 살펴 贈典과 門閭를 내려달라’고 했다.<sup>33)</sup> 이것이 받아들여져 정세아는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에, 정의번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에 추증되었다.<sup>34)</sup>

爲己功 而馳啓 朝廷不知義兵之謀 官軍償職有次 而義兵不與焉”

32) 『國譯湖叟先生實紀』 卷5 「事實」

33) 『湖叟公宗宅古文蹟抄』 「請 褒贈兩世上言」

34) 『湖叟公宗宅古文蹟抄』 「教旨」

이후에도 후손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상소를 올렸는데, 구체적으로는 정세아의 시호와 정의번의 정려 및 시호를 청하는 내용이다. 7세손 鄭一鑽이 올린 글을 보면, 정세아의 시호와 정의번의 정려는 영남 선비들의 ‘百年公論’이라고 했다.<sup>35)</sup> 이로 미루어 이 문제에 대해 후손들뿐만 아니라 도내 유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47년(영조 23)에는 鄭一鎬를 비롯해 후손 89명이 연명하여 정의번의 시호를 청원했다.<sup>36)</sup>

그런데 시호를 청원할 경우 家狀 혹은 行狀을 참조해서 諡狀을 작성하게 된다. 나아가 청시 대상자의 행적을 정리해 문집을 간행하기도 한다. 정세아의 후손들도 1768년(영조 44) 鄭夏淑 · 鄭夏澗 · 鄭夏濬를 비롯해 48명이 연명한 上書와 ‘湖叟栢巖兩世實紀’를 巡相에게 올려 조상의 행적을 알리고자 했다.<sup>37)</sup> 2년 뒤 역시 정하숙을 비롯한 후손 59명이 연명하여 정의번의 청시 상서를 올렸다.<sup>38)</sup> 1781년(정조 5)에는 정세아의 7세손 一鑽이 兩世實紀를 편집했고, 이듬해 8세손 夏遊 · 夏洗 등이 이것을 2冊으로 편찬했다.

실기의 편찬을 마친 후 1784년에 鄭夏濬은 ‘정세아에게는 ‘倡義復城之功’으로 시호를 내려주고, 정의번에게는 ‘殉國死親之烈’의 공을 인정해서 정려를 내려달라’고 다시 상소를 올렸다.<sup>39)</sup> 오천정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정에서는 정의번의 정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정세아에게 시호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다음은 정하준의 상소에 대한 영의정 鄭存謙의 발언이다.

鄭世雅에게 여러 번 증직한 것은 倡義 · 敵愾의 공이 있기 때문이나 증

35) 『湖叟公宗宅古文蹟抄』 「慶尙道永川居幼學鄭一鑽原情」

36) 『湖叟公宗宅古文蹟抄』 「永川幼學鄭一鎬等謹齋沐上書于」

37) 『湖叟公宗宅古文蹟抄』 「永川幼學鄭夏淑鄭夏澗鄭夏濬等謹再拜齋沐上書于」

38) 『湖叟公宗宅古文蹟抄』 「永川幼學鄭夏淑鄭夏澗鄭夏濬等謹齋沐再拜上書于」

39) 『湖叟公宗宅古文蹟抄』 「上言草」

직했다고 해서 諡號를 얻는 것으로 말하면 死節이 뚜렷한 자가 아니면 가 법게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그 아들 정의번은 앞장서서 포위를 뚫고 血戰하다가 죽어서 그 아버지를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정의번이 아버지를 위하여 죽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사람들을 激昂시켰으니, 조정에서 격려하고 권장하는 도리로서 정려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마땅합니다.<sup>40)</sup>

이처럼 정존겸은 정세아의 청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으나, 정의번에게 정려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다. 정존겸뿐만 아니라 좌의정 李福源, 우의정 金燧, 판중추부사 徐命善 · 李徽之 등도 정의번의 정려에 대해서는 수긍했다. 그래서 예조판서 嚴壽이 啓하여 “정의번의 죽음은 충과 효를 모두 갖췄으니 정려를 내려달라”고 했다.<sup>41)</sup> 이에 정의번에게는 정려가 내려졌다.

정세아의 9세손 鄭來休도 正祖가 행차할 때 앞드려 시호 내릴 것을 상소했다. 정조가 이것을 허락하자, 정내휴는 判書 洪良浩(1724~1802)에게 諡狀을 의뢰했다.<sup>42)</sup>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788년(정조 12) 정세아에게 ‘剛義’라는 시호가 내려졌다.<sup>43)</sup> 이로써 오천정씨 문중은 오랜 숙원이었던 정세아의 시호와 정의번의 정려를 받게 되었다.

## 2. 19세기의 請諡

19세기에 이르러 오천정씨 문중에서는 정의번의 請諡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미 1749년과 1770년에 후손들이 연명하여 巡相에게 정의번의 시호를 청원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런데 19세기에는 후손뿐만 아니라 영남의 사족도 정의번의 청시에 함께 했다. 첫 번째 사례는 1807년(순조

40) 『정조실록』 정조 8년 2월 28일(갑신).

41) 『정조실록』 정조 8년 2월 28일(갑신); 『湖叟公宗宅古文蹟抄』 「禮曹 啓目」

42) 『湖叟公宗宅古文蹟抄』 「贈資憲大夫兵曹判書鄭公諡狀」

43) 『湖叟公宗宅古文蹟抄』 「教旨」

7) 1월 16일 경주 진사 李鼎儼을 비롯한 영남 사족들이 연명해서 순상에 게 올린 글이다.<sup>44)</sup> 당시 참여한 고을별 연명 인원은 <표 2>와 같다.

<표 2> 1807년(순조 7) 청시에 참여한 고을과 인원

고을	慶州	漆谷	安東	禮安	豊基	龍宮	尙州	善山	仁同	義城
인원	30	5	51	6	3	4	6	9	28	61
고을	星州	高靈	大邱	榮川	陝川	晉州	寧海	軍威	咸昌	英陽
인원	7	6	37	1	5	7	10	2	26	7
고을	靑松	眞寶	寧山	義興	彦陽	迎日	興海	蔚山	密陽	淸道
인원	14	2	8	18	2	7	5	15	5	25
고을	慶山	河陽	安義	金山	新寧	永川	합 계			
인원	6	5	1	9	70	92	595			

모두 36개 고을 595명이 연명했다. 영천과 옆 고을 신령이 각각 92명과 70명으로 가장 많고, 그 밖에 의성·안동·대구·경주·인동·합창·청도 순이다. 진보·군위·언양·안의·榮川 등은 1~2명이 참여했다. 많은 고을의 참여를 통해 정의번의 청시는 단순히 후손들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영남 사족의 공론임을 과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827년(순조 27) 12월에는 안동 생원 金義壽, 경주 생원 李弼基, 예안 생원 李殷淳 등을 비롯한 영남의 사족들이 연명하여 정의번의 청시와 더불어 奴 億壽의 旌表를 청하는 글을 감사에게 올렸다. 당시 참여한 영남의 고을별 연명 인원은 <표 3>과 같다.<sup>45)</sup>

44) 『湖叟公宗宅古文蹟抄』 「丁卯正月十六日慶州進士李鼎儼等謹齋沐上書于」

45) 『湖叟公宗宅古文蹟抄』 「安東生員金義壽慶州生員李弼基禮安生員李殷淳等謹齋沐再拜上書于」

&lt;표 3&gt; 1827년(순조 27) 청시에 참여한 고을과 인원

고을	慶州	安東	禮安	豊基	龍宮	順興	榮川	醴泉	尙州	善山	仁同
인원	33	58	17	2	5	3	3	5	30	47	20
고을	漆谷	星州	大邱	永川	寧海	義城	青松	英陽	眞寶	丹城	知禮
인원	14	9	16	40	7	41	12	2	2	4	4
고을	金山	晉州	居昌	昌原	咸昌	軍威	陝川	密陽	淸道	興海	蔚山
인원	5	7	4	2	3	5	3	7	6	9	6
고을	梁山	慈仁	昌寧	河陽	玄風	彦陽	寧德	開寧	高靈	咸安	迎日
인원	1	2	2	5	3	1	1	3	6	5	3
고을	河東	宜寧	聞慶	草溪	義興	新寧	寧山	昆陽	泗川	淸河	합계
인원	3	5	4	5	9	3	7	1	1	1	502

연명에 참여한 고을은 55개이고, 연명한 인원은 502명이다. 1807년에 비해 연명자는 조금 줄었지만, 참여 고을은 상당히 늘었다. 세거지 영천의 40명을 비롯해 안동 58명, 선산 47명, 의성 41명, 경주 33명, 상주 30명, 인동 20명 순이다. 영남 대부분의 고을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영남 사족의 단합된 힘의 과시를 통해 청시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짐작된다. 아울러 오천정씨가 고을별로 골고루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힘과 지역적 기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이한 점은 1807년 신령에서 70명이 연명한 데 비해, 1827년에는 7명만이 연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오천정씨가 영천성 회복 과정에서 先祖의 역할과 비중 문제 및 ‘永川復城碑’ 건립 문제 등으로 신령의 안동권씨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sup>46)</sup>

그리고 奴 億壽의 정표도 새롭게 요구했다. 억수에 대한 기록은 정의번

46) 『湖叟公宗宅古文蹟抄』 『碑訟顯末』

의 「事實」·「行狀」 등에 보인다. 정의번은 1592년 8월 21일 경주성 전투에서 아버지를 구하고자 적의 포위를 뚫고 진격하는 가운데 화살을 맞아 쓰러졌다. 그때 정의번은 역수에게 “군사는 이미 패했고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셨으니 나는 적의 수중에서 죽기를 결심할 것이다. 너는 왜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했다. 그러자 역수가 눈물을 흘리며, “소인도 또한 일찍이 들으니 종과 주인의 관계가 마치 군신과 부자의 구분과 같다하였으니 소인이 주인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라고 말한 뒤 적진으로 달려 들어가 정의번과 함께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천정씨 문중에서는 주인과 종이 목숨을 함께 한 것을 가엾게 여겨, 정의번의忌日에 別饌을 차려 階下에서 역수의 제사를 지내 주었다.<sup>47)</sup>

19세기에 들어와 새삼스럽게 노 역수의 정표를 요구한 것은 왕과 신하의 군신관계가 家內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성리학이 사회 저변으로 정착되면서 烈女와 男奴·忠婢에 대해서는 남다른 대우를 해줬는데,<sup>48)</sup> 이러한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다.

10여 년이 흐른 1841년(헌종 7) 다시 안동 생원 金秉壽, 예안 생원 李殷淳, 경주 진사 李□ 등이 연명하여 정의번의 시호와 그의 노비에 대한 정표를 청하는 상서를 순상에게 올렸다.<sup>49)</sup> 그때 고을별 연명 인원은 <표 4>와 같다.

47) 『國譯湖叟先生實紀』 卷6 「事實」, 「行狀」

48)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효자·열녀에 대해 정려를 내려달라는 상소를 올리는 사례도 많으며, 그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이희환, 「조선 말기의 정려와 가문 숭상의 풍조」, 『朝鮮時代史學報』 17, 2001; 임선빈, 「충청도 대흥·덕산·예산지역의 孝行褒獎」,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김혁, 「19세기 김채상 집안의 효자정려 취득과정」, 『藏書閣』 12, 2004; 朴珠, 「18·19세기 東萊府 潁陽千氏 집안의 孝子旌閭 청원 과정-『石臺千氏五代六孝古文書』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85, 2007 등.

49) 『湖叟公宗宅古文蹟抄』 「安東生員金秉壽禮安生員李殷淳慶州進士李□」

&lt;표 4&gt; 1841년(헌종 7) 청시에 참여한 고을과 인원

고을	安東	禮安	眞寶	順興	豊基	醴泉	龍宮	英陽	靑松
인원	64	12	8	3	2	7	3	6	10
고을	義城	慶州	興海	寧海	蔚山	軍威	義興	尙州	善山
인원	14	36	5	10	7	6	3	15	58
고을	永川	新寧	金山	玄風	晉州	高靈	咸安	三嘉	靈山
인원	3	3	2	3	2	3	3	1	3
고을	慈仁	淸道	密陽	河陽	大邱	漆谷	星州	仁同	합계
인원	5	3	13	7	10	13	6	6	355

모두 35개 고을에서 355명이 연명했다. 이전에 비해 참여한 고을과 인원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안동·예안·예천 등 영남 북부지역의 인원은 시기가 내려올수록 오히려 늘어났다.

1868년(고종 5)에는 후손 鄭徹休·鄭著休·鄭川休 등 124명이 연명하여 정의번의 시호와 역수의 정표를 요구했다. 그리고 李在韶(1812~?)도 ‘정의번의 충의와 효행은 백세에 밝게 퍼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직은 내려졌지만 시호가 내려지는 은전이 베풀어지지 않았으니 2품으로 증직’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sup>50)</sup> 이러한 결과 정의번은 1870년(고종 9) 이조 참판 겸 동지의금부사에 추증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를 통해 볼 때 정의번의 시호와 노의 정표가 내려지지 않은 것 같다.

## IV. 請諡의 의미와 성격

### 1. ‘百世不遷’ 宗家の 실현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세아의 후손들은 100여년에 걸쳐 조상의 請諡와 旌閭를 위해 10여회 이상 청원했고, 19세기부터는 영남의 수십

50) 『國譯湖叟先生實紀』 卷7 「請栢巖公加 贈上言後, 吏曹回 啓」

고을에서 수백 명이 연명하여 순상에게 글을 올렸다. 후손들은 왜 오랜 시간 막대한 인적·경제적 기반을 동원해서 청시를 추진했으며,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임진왜란 이후 조선사회에는 성리학적 예제가 사회 저변으로 더욱 확대되었고, 이에 성리학적 가족질서인 종법 역시 함께 정착되어갔다. 부계적 가족질서가 정착함에 따라 同姓이 마을에 함께 모여 살게 되었다. 大田 혹은 紫陽을 중심으로 거주지를 형성했던 정세아의 가계는 장손 好禮(1604~1672)가 仙源에 입향함에 따라 그 후손들이 거기서 세거했다. 정세아의 5세손 重器가 梅谷에 입향하여 학문을 대성시키면서 그 후손들은 매곡에서 살게 되었으며, 10세손 裕昆과 裕俊의 후손들은 慈川에 살았다. 이로써 정세아의 후손들은 대전·자양·매곡·선원·자천 등지에 세거지를 마련했다.

그들은 세거지에 종택을 비롯해 누정·서원 등 건축물의 건립과 묘역 조성 및 신도비와 정려각 등을 세웠다. 정세아 후손들의 세거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건축물은 <표 5>와 같다.<sup>51)</sup>

<표 5> 정세아 후손들의 세거지에 조성된 건축물

세거지	건축명(건립 연도)
大田	湖叟宗宅(1613), 陽溪精舍(1670)
紫陽	紫陽書堂(1546), 江湖亭(1599), 五懷公宗宅(1620), 三休亭(1635), 夏泉齋(1637), 四宜堂(1726), 五懷堂(1727), 湖叟先生神道碑閣(1760), 守宜軒(1823)
仙源	涵溪精舍(1702), 蓮亭古宅(1725), 環丘祠(1777), 忠孝閣(1784), 東淵亭(1899)
梅谷	梅山宗宅(1730), 山水亭(1731), 梧麓祠(1748), 梅塢書社(1787), 向陽亭(1844), 山泉亭(1840년대)
慈川	慕古軒(1701), 橫溪書堂(1701), 玉礪亭(1716)

51) 정태일, 『오천정씨이야기』, 만인사, 2008; 『慶尙北道永川郡邑誌』(1899); 『永陽誌』(1935). 이 표는 주로 정세아의 장자 宜藩 후손들의 동성마을에 조성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다.

16세기부터 서당과 누정 등을 건립하기 시작하여 18~19세기에 가장 활발한 건립 양상을 보인다. 종법이 정착함에 따라 사족 개인의 위상은 그가 속한 문중의 위상과 일치하기 때문에 문중의 구성원들은 문중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문중 구성원간의 결속을 도모하기도 했다.<sup>52)</sup>

그런데 종법에 기초한 종가는 ‘百世不遷’의 大宗과 4대가 지나면 신위를 遞遷하는 小宗으로 나뉜다.<sup>53)</sup> 주희가 『주자가례』를 통해 제시한 사족의 가족제도는 소종에 기초한 것이었다.<sup>54)</sup> 사족들은 『경국대전』에서 제시한 ‘문무관 6품 이상은 3대를, 7품 이하는 2대를, 庶人은 부모만 제사지내라’<sup>55)</sup>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주자가례』에 따라 4대조의 기제를 행했다. 그러나 조선후기 향촌사회가 문중단위로 재편되는 가운데, 사족들은 4대조 기제와 더불어 불천위 조상을 모시는 대종을 실현하고자 했다.

조상을 불천위로 모시는 방법은 시호를 받는 것이다. 『경국대전』 奉祀條에는 ‘功臣이 된 자는 비록 親盡하여도 神主를 옮기지 않고 따로 방 하나를 세운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別廟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천위가 되기 위해서는 정2품 이상의 관직을 제수받거나 전쟁 혹은 반역이 있어났을 때 공을 세워 시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 시호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런데 1757년(영조 33) 조정에서는 ‘문묘에 배향된 儒賢들은 불천위에 해당된다’<sup>56)</sup>고 했다. 이것이 『大典通編』에도 반영되어 ‘儒賢 및 節義로 이름이 아주 드러난 자는 정2품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시호를 내린다’<sup>57)</sup>라

52) 金文澤, 『16~17世紀 安東의 眞城李氏 門中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 2004; 김명자, 앞의논문, 2009.

53) 주 3) 참조.

54) 朱熹(임민혁 옮김), 『朱子家禮』, 2003.

55) 『經國大典』 禮典 「奉祀條」 “文武官 六品以上 祭三代 七品以下 祭二代 庶人則只祭考妣”

56) 『영조실록』 33년 9월 18일(정미)

57) 『大典通編』 권1 「吏典」 贈諡 “儒賢及死節人表著者 雖非正二品 特許賜諡”

고 했다. 이처럼 시호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자 문중마다 顯祖에 대한 칭시를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상에 대한 시호를 청원한다고 해서 바로 시호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19세기 안동의 靑城書院에서 작성한 「通文」을 보면, ‘요즘 이런 일로 어지러워 도리어 識者들의 빈축과 걱정을 사는 일이 있다. 정중하고 차분함에 힘쓰지 않고 급히 서둘러 일을 진행하다 보면 승모하여 그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도리어 받은 얻고 받은 잃게 되기도 한다’<sup>58)</sup>라고 했다.

한편 조선시대 영남 인물의 시호 사례를 보면, 퇴계학맥으로 뚜렷한 학문적 행적이 있는 인물이 가장 많고, 그밖에 고려 말에 절의를 지킨 인물, 조선전기 공신으로 책봉된 인물, 문묘에 배향된 인물, 土禍와 관련된 인물,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을 한 인물 등으로 구분된다.<sup>59)</sup>

오천정씨 가운데도 儒賢으로 이름난 인물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이 정세아의 의병 행적을 근거로 청시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임진왜란 당시 관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병 창치는 실제적·명분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더구나 영천과 경주 지역의 의병은 왜군이 침략했을 때 전투를 승리로 이끈 공이 컸다. 따라서 정세아에 대한 시호 청원은 조상에 대한 후손들의 자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임진왜란 이후 조선사회의 재건에서 성리학적 이데올로기가 사회 저변으로 확대됨에 따라 충과 효, 그리고 정절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래서 유현으로 이름이 난 인물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부모를 위해 목숨을 바친 조상에 대해 청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정세아에게 시호가 내려짐으로 인해 ‘湖叟宗家’는 국가로부터 ‘백세불침’

58) 柳雲龍, 『謙菴別集』 卷2 附錄 「靑城書院通文」 “近於紛紛擾擾 反貽識者之憂 如不務加昭詳 徒爲汲汲 則其於崇闡之道 正所謂得其半而失其半也”

59) 김명자, 「불친위의 성격과 문헌자료의 보존 현황」, 『慶尙北道 宗家文化研究』, 慶尙北道·嶺南文化研究院, 2010, pp.45-46.

의 증가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조선후기 조정으로부터 시호를 받지 못하면 유림에서 시호를 주기도 했고,<sup>60)</sup> 도내 유림의 공의로 불천위를 선정하기도 했다. 그마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문중의 공론으로 불천위를 모시기도 했다.<sup>61)</sup> 사적 조직의 문중이 서원 건립을 통해 공적인 조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sup>62)</sup>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불천위 증가는 대종가로서의 명분을 획득하게 되었다.

## 2. 영남 사족의 ‘연대’를 통한 請諡

정세아의 후손들은 18~19세기 10여회 이상에 걸쳐 請諡를 추진했다. 18세기에는 후손들 가운데 명망있는 인물이 상소하거나 연명의 형태로 上書했는데, 19세기에는 주로 영남 사족의 공론에 의거해 청원했다. 후손들이 청원할 때는 50~120여명이 연명했고, 영남의 사족은 300~500여명이 연명해서 청원했다. 후손들은 왜 연명을 통해 청시를 추진했으며, 이들이 오랜 기간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청시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것은 오천정씨의 학연·혈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세아가 사망했을 당시 旅軒 張顯光이 써준 祭文, 孫處訥이 쓴 輓詞, 曹好益의 수제자 奎三省이 쓴 壙記가 남아 있다. 정세아의 손자 好仁·好信·好問도 장현광에게 수학했고, 好義도 손처님과 전삼성의 문인이었다.<sup>63)</sup>

오천정씨는 특히 장현광과 교유가 활발했는데, 이는 鄭四象(1563~1623)·鄭四震(1567~1616) 형제의 역할이 컸다. 그들은 權克立

60) 이를테면, 유림들이 청도의 김해김씨 金克一과 경주의 양동손씨 孫永光에게 각각 ‘節孝’이라는 시호를 줬다.(『濯纓集』 卷8, 別附 「節孝先生孝門銘跋」; 『雪松堂文集』 附錄 「墓碣銘」 “癸亥多士公議私諡節孝”)

61) 일반적으로 불천위는 국불천위, 유림불천위, 문중불천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유림불천위가 가장 많다(김명자, 앞의 논문, 2010).

62) 이해준, 『朝鮮後期 門中書院 研究』, 경인문화사, 2007.

63) 『迎日鄭氏宣務郎公派譜』(1999)

· 孫宇南과 더불어 ‘立巖結社’를 맺었으며, 장현광에게 영천 방문을 청했다.<sup>64)</sup> 장현광은 임진왜란 당시 피난처로 영천에 머물면서 강학활동을 했는데, 그때 오천정씨가 그의 문하에 많이 들어갔다. 이로 인해 16~17세기 오천정씨의 학연은 상대적으로 ‘旅軒學團’과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었다.

오천정씨는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門戶가 다시 부흥했다. 그 계기는 정호인의 증손 鄭萬陽(1664~1730)과 동생 鄭葵陽(1667~1732)의 학문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이들을 정호·정이 형제와 같다고 했다. 그들은 퇴계학과 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했던 葛庵 李玄逸의 문인으로 尹拯·鄭齊斗·蔡成胤·丁時翰·李衡祥·趙顯命 등과도 학문적 교류가 있었다. 그들의 학문은 經史·성리학·예학·천문·지리·역학·律呂·科制에 이르기까지 두루 정통했다. 이들은 宦路 보다는 후진양성에 더욱 전념했으며, 『家禮筭疑』·『改葬備女』·『尙志錄』·『慕賢錄』 등을 비롯해 상당한 양의 저술을 남겼다.<sup>65)</sup>

정만양·정규양 형제뿐만 아니라 鄭重器·鄭碩祐·鄭來陽·鄭重祿·鄭東陽 등도 이현일의 문인이었다. 오천정씨 가운데 이현일의 문인이 많이 배출된 데는 혼인이 영향을 끼쳤다. 정만양의 어머니 의성김씨는 金邦烈的 딸이다. 그래서 정만양은 외가인 안동 川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곳의 학문 풍토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한편 정만양은 재령이씨 李之煜의 딸과 혼인했다. 정중기 역시 의성김씨 金邦謙의 딸과 혼인했고, 그의 아들은 진성이씨와, 손자는 풍산유씨와, 증손자는 진성이씨와 혼인하여<sup>66)</sup> 주로 영남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혼반이 북부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현일이 재령이씨이고, 그 문하에는 의성김씨·진성이씨가 많았으므로 그들과 혼반을 형성했던 오천정씨 문중에서도 이현일의 문인이

64)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 2007, p.99.

65) 鄭萬陽·鄭葵陽, 『頃麓兩先生文集』, 卷7~20 書, 卷21~24 雜著·序·跋文 참고.

66) 『迎日鄭氏宣務郎公派譜』(1999)

많이 배출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천정씨의 인적 교류 범위는 ‘葛庵學團’을 따라 영남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학문적·혈연적 기반 위에 오천정씨는 조상 현창 사업에 당대 ‘在京南人’의 핵심 인물과 영남학맥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던 인물로부터 글을 받을 수 있었다. 후손 가운데 碩達·萬陽·葵陽·重器 등이 대를 이어 정세아와 정의번의 事蹟을 모집하고 보충했다. 그들은 정세아의 행장은 權斗寅에게, 신도비명은 경상감사였던 趙顯命에게, 묘지명은 宋寅明에게 부탁했다. 「事實」과 「墓表」는 당시 학문적 명성이 높았던 정세아의 6세손 만양이 썼다. 한편 정의번의 「哀詞」는 승지를 역임했던 申之槎가 썼고, 「事實」은 증손 碩達이 지었으며, 행장은 정규양이 썼다. 「詩塚碑銘」은 예조참판을 지낸 吳光運이 찬했고, 「墓誌銘」은 이조참판을 지낸 柳命天이 썼다. 그리고 시충 뒷면에 「題詩塚碑後」라는 글은 承旨 李獻慶이 썼다.

후손들은 이것을 엮어 「壬辰忠賢錄」 혹은 「烏川世稿」로 부르다가,<sup>67)</sup> 一鑽에 이르러 兩世實紀로 엮으려고, 우승지를 지냈던 정범조(1723~1801)와 병조참판인 蔡弘履(1737~1806)에게 서문을 받았다.<sup>68)</sup> 함부로 글을 써주지 않는 당시의 풍토를 감안할 때 이들로부터 글을 받았다는 사실은 오천정씨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조선후기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영남의 사족이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인적 기반의 확대였다. 16~17세기 오천정씨의 가학이 ‘여헌학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면, 17세기 후반부터는 ‘갈암학단’으로 상정된다. 이로써 인적 교류망이 ‘갈암학단’을 따라 영남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오천정씨의 혼인은 경주최씨·창녕조씨·일직손씨를 비롯한 영남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18~19세기에 이르러서는 安東圈의 의성김씨·진성이씨·재령이씨 등과도 거듭되었다. 그래서 오천

67) 『國譯湖叟先生實紀』 「序」

68) 『國譯湖叟先生實紀』 「序」

정씨는 내부적으로는 문중의 구성원들을 결집시키는 방법으로, 외부적으로는 영남 사족과의 학연·혈연을 통한 ‘연대’로 자신들의 숙원 사업인 청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18~19세기 永川 鄭世雅의 후손들이 선조 정세아·鄭宜藩에 대해 請諡한 내용과 그것이 갖는 의미와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천정씨는 고려 말 8世 仁彦이 영천 錢村으로 입향했으며, 정세아의 후손들은 大田·紫陽·仙源·梅谷·慈川 등으로 세거지를 확대했다. 16세기에 이르러 오천정씨는 향촌에서 사족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했으며, 임진왜란 당시 창의한 인물도 많이 배출했다. 이는 향촌에서 오천정씨의 위상을 높이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한편 정세아와 정의번의 임진왜란 당시 행적을 담고 있는 자료로는 『湖叟先生實紀』, 『선조수정실록』, 임진왜란 당시 관군과 의병들의 狀啓와 일기류, 『火旺入城同苦錄』 등이 있다. 청시 관련 자료는 『호수선생실기』와 1988년 후손들이 엮은 『湖叟公宗宅古文蹟抄』에 실려 있다. 이것을 통해 정세아 부자에 대한 시호와 정려 청원 과정을 재구성했다.

1731년(영조 7) 오천정씨는 처음으로 정세아 부자의 贈職과 시호를 청원하는 상소를 올렸다. 정세아에게는 ‘倡義해서 城을 회복한 공’으로 시호를 내려주고, 정의번에게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아버지에게 효도한 공’으로 旌閣을 내려달라고 했다. 수차례의 상소 끝에 1784년(정조 8) 정의번에게는 정려가 내려졌고, 1788년(정조 12) 정세아에게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천정씨의 청시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 19세기에는 정의번의 청시와 경주성에서 정의번과 함께 죽은 奴 億壽의 旌表를 본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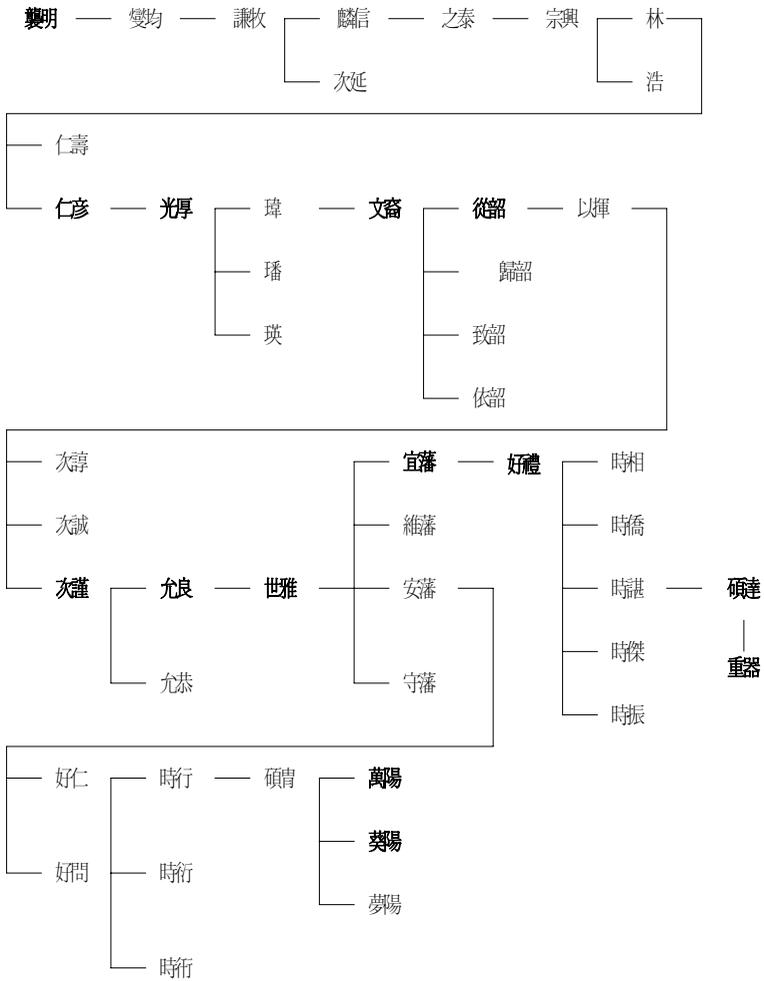
적으로 요청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후손들뿐만 아니라 영남 사족도 함께했다. 후손들이 청원할 때는 50~120여명이 연명했고, 영남의 사족들이 청원할 때는 수십 고을에서 300~500여명이 연명했다.

정세아의 후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조상에 대해 시호를 청원한 것은 조상 현창과 더불어 ‘百世不遷’의 종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였다. 조선후기 부계적 가족질서가 정착함에 따라 특정 선조의 후손들은 동일 문중의 구성원이 되며, 그 가운데 받아들여 계승된 가계는 宗家가 된다. 종가는 크게 大宗家와 小宗家로 나눌 수 있는데, 대종가는 ‘백세불천’의 신위를 모시며, 소종가는 4대가 지나면 신위를 遞遷한다. 조상이 시호를 받게 되면 ‘백세불천’의 신위를 모시는 대종가가 될 수 있고, 더불어 문중의 위상도 제고된다. 그래서 후손들은 도내 유림의 이름으로 혹은 후손들의 이름으로 조상 가운데 행적이 뚜렷한 인물의 청시를 활발하게 전개했던 것이다.

오천정씨가 수십 고을에서 수백 명의 인원을 동원해 청시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학연과 혈연적 기반에서 비롯되었다. 16~17세기 오천정씨는 학문적으로 ‘旅軒學團’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며, 혼인은 주로 영남 중부지역의 성씨들과 거듭되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부터 오천정씨 가운데 ‘葛庵學團’에 속하는 인물이 많이 배출되고, 혼반도 영남 북부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더불어 오천정씨의 인적 기반도 ‘갈암학단’을 따라 영남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오천정씨는 내부적으로는 문중의 구성원들을 결집시키는 방법으로, 외부적으로는 영남 사족과의 학연·혈연을 통한 ‘연대’로 자신들의 숙원 사업인 청시를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었다.

【부표】 烏川鄭氏 世系圖<sup>69)</sup>

69) 烏川鄭氏 宣務郎公派 가운데 鄭世雅 가계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0일(土)에 투고 완료되어  
 2010년 11월 15일(月)부터 11월 26일(金)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0년 11월 29일(月) 편집위원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1. 자료

- 『經國大典』(1997, 서울대 규장각)  
『大典通編』(1998, 서울대 규장각)  
『錦溪集』(黃俊良)  
『謙菴別集』(柳雲龍)  
『國譯湖叟先生實紀』(1976)  
『復齋實紀』(鄭湛, 1949)  
『雪松堂文集』(孫永光)  
『濯纓集』(金駟孫)  
『慶尙北道永川郡邑誌』(1899)  
『永陽誌』(鄭瑩植 編, 1935)  
『迎日鄭氏宣務郎公派譜』(1999)  
『臨臯書院誌』(臨臯書院 所藏本)  
『火旺山城錄』(창녕문화원, 1996)  
『湖叟公宗宅古文蹟抄』(烏川鄭氏夏泉宗約會, 1988)  
『禮記』(權五惇 譯解, 흥신문화사, 1982)  
『朱子家禮』(임민혁 옮김, 예문서원, 2003)  
『朝鮮王朝實錄』(<http://sillok.history.go.kr>)

### 2. 연구 성과

- 권연웅, 「鄭湛의 永川 鄉規」, 『慶北史學』 26, 경북사학회, 2003, pp.263-277.  
金命子, 『조선후기 安東 河回의 豊山柳氏 門中 연구』, 경북대박사학위논문, 2009.  
김명자, 「불천위의 성격과 문헌자료의 보존 현황」, 『慶尙北道 宗家文化研究』, 慶尙北道·慶北大嶺南文化研究院, 2010, pp.36-55.

- 金文澤, 『16~17世紀 安東의 眞城李氏 門中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 논문, 2004.
- 김인걸, 『조선후기 鄕村社會 변동에 관한 연구 : 18·19세기 ‘鄕權’ 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1.
-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박사학위논문, 2007.
- \_\_\_\_\_,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증시(贈諡) 행정」, 『古文書研究』 23, 한국고문서학회, 2000, pp.59-91.
- 김 혁, 「19세기 김채상 집안의 효자정려 취득과정」, 『藏書閣』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 pp.97-139.
- 朴 珠, 「18·19세기 東萊府 穎陽千氏 집안의 孝子旌閭 청원 과정-『石臺千氏 五代六孝古文書』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85, 韓國史學會, 2007, pp.77-120.
- 朴洪甲, 「李朝時代의 贈諡制度」,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金潤坤教授停年紀念論叢』, 韓國中世史學會, 2001, pp.375-400.
- 申用浩, 「先賢들의 諡號研究」, 『公州師大論文集』 27, 1989, pp.43-60.
- 俞尙根, 「李朝時代의 贈諡制度」, 『象隱趙容郁博士頌壽紀念論叢』, 象隱趙容郁博士古稀紀念事業會, 1971(『朝鮮前期論文選集 77』, 三貴文化社, 1998, pp.62-77 재수록)
- 李漢昌, 「諡號制의 來歷과 李石灘의 贈諡 事例」, 『白山學報』 70, 白山學會, 2004, pp.857-878.
- 이해준, 『朝鮮後期 門中書院 研究』, 경인문화사, 2007.
- 이희환, 「조선 말기의 정려와 가문 승상의 풍조」, 『朝鮮時代史學報』 17, 朝鮮時代史學會, 2001, pp.141-170.
- 임선빈, 「충청도 대흥·덕산·예산지역의 孝行褒獎」,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pp.167-200.
- 정태일, 『오천정씨이야기』, 만인사, 2008.
-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03.
- 하영희, 「하왕산성의 기억」,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pp.113-143.

Abstract

## Asking the Government to grant the Ancestors the Posthumous Epithets(請諡) of the Descendants of Se-ah Jeong in Yeongcheon and Clan Activity

Kim, Myung-ja

This study was began from the following questions. Asking the government to grant the ancestors the posthumous epithets(請諡) was active in Yeongnam's noble society in the late of Joseon Dynasty. Why did they ask the government to grant the ancestors the posthumous epithets? What kinds of efforts did descendants make to receive the ancestral posthumous epithets? What is the development about asking the government to grant the ancestors the posthumous epithets? How did the ancestral posthumous epithets have the effects on the descendants' life? To answer the above questions, Ocheon Jeong clan in Yeongcheon examined the cases to ask the government to grant the father and the son of Se-ah Jeong and Eui-beon Jeong who are his ancestors the posthumous epithets. The summary of the content which were handled here and the result are as follow:

Ocheon Jeong clan appealed to the government to ask the government to grant Se-ah Jeong and Eui-beon Jeong the posthumous epithets and official commendation and granting the title giving credit for him(旌闡) more than 10 times in the 18th ~ 19th centuries. Mr. Jeong asked the government to grant Se-ah

Jeong the posthumous epithet because he regained the castle by raising an army in the cause of loyalty and to do Eui-beon Jeong official commendation because he gave up his life for his country and was good to his father. Official commendation was granted to Eui-beon Jeong received in 1784 by the several appeals for 50 years and the posthumous epithet called 'Gangeui' was done to Se-ah Jeong in 1788. Despite of them, asking the government to grant the ancestors the posthumous epithets by Ocheon Jeong clan had not been finished. In the 19th century, the descendents and the noble society in Yeongnam again appealed to the government to ask the government to grant Eui-beon Jeong the posthumous epithet and to demand praising the good deed and giving wider publicity to it(旌表) of Eok-su Rho who died with him with the form which writes the names of more than two persons in one place (聯名) seven times. When they appealed to the government, 50~120 persons wrote their names in one place and when the noble persons did, 300 ~ 500 ones did them in it.

Why did Ocheon Jeong clan promote asking the government to grant his ancestors the posthumous epithets by bringing the many persons for a long time? He did all the things to show his ancestors(顯彰) and to receive attention of the 'eternal(百世不遷)' head family(宗家) officially. The head family is largely divided into the big head family(大宗家) and the small head family(小宗家). The big head family should keep the an eternal ancestral tablet and the small head family moves it to the oldest son's house when four generations pass. The government officially recognizes the big head family because the ancestors who receive the posthumous epithets

don't need to move the ancestral tablet. The posthumous epithets of the ancestors raise the descendents' status. Therefore, the descendents actively asked the government to grant the ancestors whose whereabouts are clear the posthumous epithets.

The human base that Ocheon Jeong clan appeal to the government with the document that hundreds of persons in dozens of villages is based on the school and blood ties. The school ties of Ocheon Jeong clan in the 16th ~17th centuries can postulate 'Eohyeonhakdan(旅軒學團)' and people in it repeatedly married the family who lived in the central area of Yeongnam. But it is academically based on 'Galamhakdan(葛庵學團)' in the second half of the 17th century and marriage was extended to the northern area of Yeongnam. They could develop asking the government to grant the ancestors the posthumous epithets through the connections of the noble society of Yeongnam.

Key words : Ocheon Jeong clan(烏川鄭氏), Se-ah Jeong(鄭世雅), Eui-beon Jeong(鄭宜藩), the posthumous epithet(諡號), Asking the government to grant the ancestors the posthumous epithets(請諡), eternal (百世不遷), the big head family(大宗家), clan(門中)